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찾기



자신에 대해 잘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확장시키고 표현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방송듣기: 진로정보망 커리어넷>학부모용 오디오 진로정보 진로레시피]

자신을 잘 모르는 청소년

종이 한 장을 주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을 그려봐”라고 하면 머뭇거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간혹 “캐릭터를 그려도 돼요?”라고 묻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좋아해도 되는 것과 좋아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이미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데 반대로 남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적성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수학에서 100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수학에 흥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점수나 외부평가에 노출된 아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계속 자신을 숨기다 보니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아하는 게 뭐냐는 질문을 받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채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한 후에야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진로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꿈에 대한 다양한 표현의 필요성

꿈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꿈을 직업으로 생각하다보니 직업을 갖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결되고, 결국 꿈은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더 다양하고 추상적으로든 구체적으로든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하지만 자신에게는 가치 있는 것들, 이상적인 행동들을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

창의력이란 나만의 시각, 생각,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나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의력을 키우려면 세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만의 시각’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와 오늘의 하늘이 어떻게 다른지 똑같은 일상 속에서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해석 능력’입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한 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머릿속에서 ‘정답’을 지워야 재해석하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비 오는 날을 그리게 하면 대부분 우산 쓴 사람을 그립니다. 비 오는 날 경험했던 수많은 이미지는 사라지고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이미지만 머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비 오는 날 경험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문에 가장 일상적인 것부터 자녀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표현하기’입니다. 자신이 재해석한 것을 글, 그림 등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게 하여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할 시간

자녀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는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를 갖고 닦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아이들은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는 시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출처: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시즌 5-46, 5-47회)

진로·진학(학습)·직업전문가가 함께하는 진로솔루션 컴퓨터보안전문가 편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커리어넷 > 진로상담 > 진로솔루션'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Q1 컴퓨터보안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컴퓨터공학과나 정보보호학과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컴퓨터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서버 및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등을 익히고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면 도움이 됩니다.

-SK C&C 이찬우 과장

Q2 어떤 회사나 기관에서 일하나요?

크게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 부문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중앙부처 등이 있으며, 민간 부문은 민간기업의 보안 담당 및 일반 국민의 민원 등을 처리·보호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컴퓨터 백신 개발·보급 업체, 보안 시스템 운영 및 보안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업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라이나생명 개인정보보호팀 장진원 대리

Q3 컴퓨터보안전문가를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모의해킹을 통해서 서버나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발견하는 화이트해커, 공격받은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응하며 역추적하는 침해대응전문가,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보안솔루션 개발자, 기업 내 정보 보안 정책을 수립·관리하는 정보보안 담당자, 기업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정보보안컨설턴트 등이 있습니다.

-금융협회 정보보호담당자 은재영

Q4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등에 대한 공부를 통해 IT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악성코드 분석, 웹 보안,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영역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만큼 윤리의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협회 정보보호담당자 은재영



컴퓨터보안전문가를 꿈꾸는 고2 남학생인데,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저는 꼼꼼하지도 않고, 논리력도 평범하며, 창의력도 떨어집니다. 윤리의식만 높습니다. 고등학교를 정보보안, 컴퓨터공학 설계 쪽으로 맞춰 와서 이제 바꾸기도 어려운데 어쩌면 좋을까요?



진로전문가

"자신에게 필요한 적성을
키울 수 있어요."

컴퓨터보안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자신이 가진 강점에 집중하고 부족한 점은 키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보세요. 학생은 컴퓨터보안전문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성을 갖추었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있으므로 학업과 업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멈추지 말고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더욱 알차게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진학전문가

"열심히 한 만큼 모든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전혀 헛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은 자발성과 능동성, 적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며, 진로를 결정한 후 꾸준히 해온 다양한 활동은 성실성을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논리력과 창의력은 관련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보다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직업전문가

"강점을 극대화하여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도 꼼꼼하지 않은 성격이라 관련 업무를 하면서 곤란을 겪은 적도 있는데, 이런 약점은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장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설계하는 학생의 자세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컴퓨터 관련 분야에 도전해보십시오.